

<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믿고 영광을 돌리고 사랑해야 만족하는 존재자시다.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, 지구를 창조하시고, 사람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.
2. 사람도 자기가 상대에게 해 준 만큼 해 줘야 만족한다. 하나님도 그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.
3. 사람 자체로는 한 단계를 오르기가 그리도 어렵다.
4. 구약세계에서 신약세계로 시대적으로 한 단계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, 예수님이 아니면 오를 수 없었다. 신약세계에서 성약세계로 역사적으로 한 단계를 오르는 것도 절대 사람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오를 수 없다.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의 몸을 쓰고 새로운 역사를 펴며 행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.
5.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한 차원 높여 사는 것도 수십 년, 수백 년 만에 겨우 이뤄진다.
6.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이고 사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과 같다.
7.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살다가,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해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서 한 차원 높인 삶을 살게 됐

다. 그러나 그들은 차원 높은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저앉고 말았다. 후에 여호수아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게 해 주었다. 전진하여 앞으로 가는 삶이었다. 적과 싸워 이김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게 해 주었다. 이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도 보낸 자를 통해 과거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해 주셨다. 그러므로 상상도 못 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. 한 차원 높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마다 겪고 깨달아라.